

사귀

은 권용승 김이선 가람 하람 다현 가족의 소식지입니다.

2020. 02. 05

2020 새해 첫 '사귀'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프놈펜기술학교는 두주반의 겨울방학을 보내고 지난달 8일 두번째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명의 한국어 기초반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한국어 1급반에 돌려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저와 배우는 학생에게 지혜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학교 회계일을 현지인 선생님에게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학교 일반 행정이 현지인 선생님 위주로 자리잡혀가길 바랍니다. 제가 속해있는 한국목회지원회 캄보디아 본부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전문 선교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기술훈련까지 교육선교현장인데 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국본부와 현지 대표자,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족은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도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람이가 이곳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무사히 영국에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람이는 금년부터 출석하는 교회 유소년부에서 스태프로 돕는다고 합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노트를 적어 가족들과 공유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독립적인 신앙인격체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람이는 이제 두달후면 대입을 위한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영국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몇 대학에서 조건부 입학허가받았습니다. 두 달 후 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공식 합격합니다. 잘 준비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국시민으로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시민으로 입학허가를 받아야 학자금 용자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독립된 신앙인격체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이는 고등학교 첫학기를 잘 보냈습니다.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어 또다시 교육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교육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친구들과도 마지막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금년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안식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건강에 따라, 또 다현이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때까지 이동을 줄이기 위해, 해외 선교사역을 은퇴하고 한국에 장기 정착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일단 아내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국제학교에 교사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소식에서 알려드린대로 교사자격증은 잘 갱신되어 감사합니다. 아내가 가르치고 또 다현이가 다닐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로 인도하심을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다현이 학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게 될 지 몰라 아직은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저희 갈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중국 우한과 직항으로 연결된 도시인 시하누크빌에서 확진자 1명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는 없습니다. 다만 시하누크빌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앙코왈이 있는 씨엠립에는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다음주 캠프활동을 취소했습니다. 저희 학생들 출석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세계적으로 흉흉한 바이러스 소동으로부터 우리모두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배려하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길 바랍니다.

카톡아이디 4yskwon

매일성경 <https://quietwatersweb.wordpress.com/>